‘비대면 확산’ 은행 ATM 급감소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 멀어진다

4대 은행, 1년9개월간 1200대 없애
작년 869대 이어 올해 399대 추가
3분기 영업점도 총 37곳 줄어들어

4대 시중은행이 영업점을 축소하는 가운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도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1년9개월 사이 사라진 자동화기기만 1200대를 넘어섰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과 운영비 부담이 맞물린 결과지만,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지방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이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는 총 1만6634대로 집계됐다. ATM과 현금자동지급기(CD), 공과금 수납기 등을 합산한 수치다.

2024년 말 1만7902대였던 자동화기기는 지난해 869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월까지 399대가 추가로 줄었다. 1년9개월 만에 총 1268대(7.1%)가 사라진 셈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는 2024년 말 4991대에서 올해 9월 말 4414대로 577대(11.6%)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4222대에서 3808대로 414대(9.8%) 감소했다.

KB국민은행은 5169대에서 4915대로 254대(4.9%) 줄었고, 하나은행은 3520대에서 3497대로 23대(0.7%) 줄었다. 은행별로 감소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4대 은행 모두 자동화기기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뿐 아니라 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도 축소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영업점은 지점과 출장소를 합쳐 2665곳으로, 6월 말보다 37곳 감소했다. 3분기 중 감소한 영업점은 모두 우리은행 소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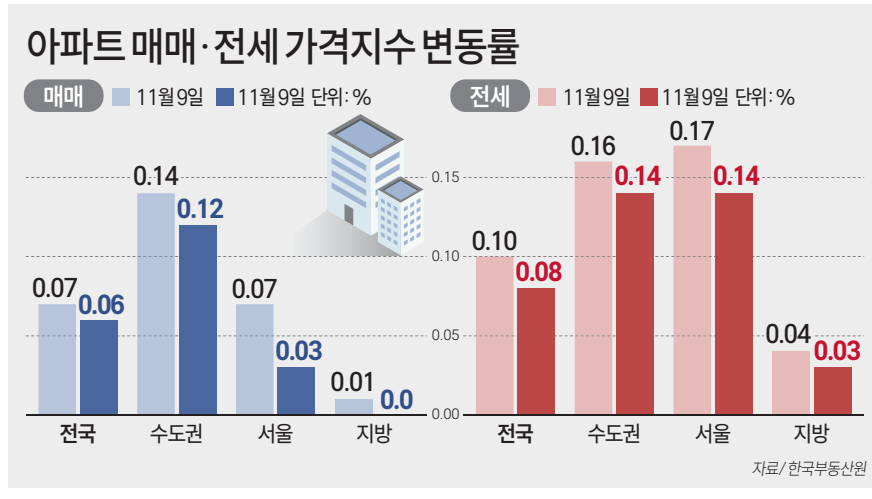
은행권의 점포와 자동화기기 축소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오프라인 금융시설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수송과 보안 관리, 기기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축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영업점과 자동화기기가 동시에 줄어들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현금 인출과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하고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ATM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현금 호송과 보안, 기기 유지보수 등 물리적 부담도 커져 은행권의 ATM 기기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 집값 93주 연속 ↑… 상승폭은 둔화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주간 0.03% ↑
강남·용산·동작 등 7개구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93주 연속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강남3구를 포함한 7개 구는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6%에서 0.13%, 0.09%, 0.07%, 0.07%로 낮아져 왔고, 이번 주 0.03%까지 떨어졌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91%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과 구축 단지에서 매매가격을 낮춘 계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하락한 자치구는 송파·서초·강남·성동·용산·동작·강동 등 7곳이다.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로 0.42% 내렸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26%, 0.25% 하락했다. 강남구(-2.57%)와 서초구(-0.80%)는 올해 누적으로도 마이너스다.

성동구(-0.04%)와 강동구(-0.01%)는 2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0.02%)와 동작구(-0.01%)는 이번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34%)는 돈암·정릉동 대단지, 중랑구(0.32%)는 신내·면목동, 금천구(0.29%)는 시흥·독산동, 도봉구(0.24%)는 쌍문·창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0.2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남부 지역이 강세를 이끌었다. 특히 수원 권선구가 0.62% 올라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안양 동안구(0.61%)와 용인 기흥구(0.55%)도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0.12% 올랐다. 지방은 보합(0.00%)이었고, 전국은 0.06%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포츠 경기 무료관람 등 수험생 혜택 ‘풍성’

카드·캐피탈사 수능시즌 이벤트
KB국민, 50만원 이용고객 페이백
신한·비씨, 수능 응원 댓글 이벤트
우리, 프로배구단 무료관람 실시

국내 주요 카드·캐피탈사들이 수능 시즌을 맞아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경품 증정, 스포츠 경기 무료 관람까지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30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페이) 머니 100만원(1명), 신세계 상품권 10만원(10명), 배달의민족 상품권 3만원(110명) 등이다.

특히, 이달 22일까지 외식업종·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에서 1건 이상 결제하면 추첨 기회가 1회 추가된다. 23~30일에는 건당 3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이 1건 이상이면 추첨 기회 3회가 주어진다.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수능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이달 24일까지 신한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 중 일부를 선정해 모찌 찹쌀떡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다.

비씨카드는 비씨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수능 합격·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BBQ 황금올리브치킨·콜라(5명), 메가 MGC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1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우리카드 우리 원(WON) 프로배구단 홈경기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 경기는 이달 22일, 26일, 내달 5일, 23일, 31일 등 총 5경기다.

수험생 본인에 한해 2층 일반석의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험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티켓 매진 시에는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

현대캐피탈도 배구단 홈경기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수험생 본인에 한해 유관순체육관 내 점프업석·A석·B석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무료 관람 이벤트는 이달 20일과 내달 2일, 6일, 15일, 19일에 열리는 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카드는 문화생활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내달 31일까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전’ 티켓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동반 1인까지 적용 가능하다.

한편 카드업계의 수능 이벤트는 캐시백 등 금전적 혜택에서 스포츠 경기 무료 관람, 전시 관람료 할인 등 문화·여가 혜택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연계 현황〉 (2026.11.18 기준, 개)

구분	병원·보건소(1단계)		의원·약국(2단계)		합계	
전체	7,810	(100%)	97,833	(100%)	105,643	(100%)
연계 예상*	5,095	(65.2%)	96,685	(98.8%)	101,780	(96.3%)
연계 완료**	5,017	64.2%	52,241	(53.4%)	57,258	(54.2%)

*연계 예상 :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1단계) 실손24 참여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2단계)
**연계 완료 : 실손24 연계가 완료되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금융위, “놓친 실손보험금 1조 찾아가세요”

‘실손24’ 미청구 보험금 찾기 추가
의료기관 연계 내년 1분기 서비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놓친 보험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현황,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시행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미청구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 정보와 보험금 청구 이력을 결합해 최근 3년간 방문한 병·의원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연계도 확대한다.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총 5만725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54.2%다. 병원과 보건소 등 1단계 대상 기관의 연계율은 64.2%, 의원과 약국 등 2단계 대상 기관은 53.4%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이며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편의성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폭 증가

한은, 3448억弗로 2807억弗 증가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데다 국내 주가 하락으로 외국인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줄면서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한 영향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3448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2807억달러 증가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잔액인 대외금융부채를 뺀 금액이다.

대외금융자산은 3조2221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1379억달러 늘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2조8774억달러로 1429억달러 감소했다.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가 맞물리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외금융부채 감소는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평가액 축소의 영향이 컸다. 3분기 코스피가 19.3%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지분증권 투자 잔액은 1888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전체적으로 1643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는 2분기 639억달러에서 3분기 82억달러로 축소됐다. 지분증권 잔액 감소분 가운데 가격·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감소가 1805억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순대외금융자산 증가분을 요인별로 보면 매매·대출 등 거래 요인이 1377억달러, 가격·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이 1430억달러였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4209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401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210억달러에서 324억달러로 확대됐고, 해외 채권 투자는 30억달러 순매도에서 144억달러 순매수로 전환했다.

/김주형 기자 gh471@